

##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사회연결망



이건창 (기학연동역회 조직관리 위원장,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교회는 믿음의 장소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거룩한 교제의 장이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강조된 바이지만 문제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교제하기란 생각처럼 녹녹치가 않다. 일단, 학력으로 나뉘고 나이로 나뉘고 성별로 나뉘고, 그리고 교향으로 나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교제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교회의 평균적인 사회연결망의 형태이다. 사회연결망이란 social network로서 사람들 간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의 관계의 정도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사회연결망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 그림 1을 보자. 이는 성도들간의 관계가 그나마 골고루 퍼져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그림 2를 보자. 이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지나치게 많고 해당 소그룹 내에서는 교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자기가 속한 소그룹 밖의 성도들과는 거의 교제가 되지 않는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사회연결망에서는 전체 연결망에서 소그룹끼리 모여있는 소규모 연결망 집단을 클릭(clique)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회 안의 수많은 클릭의 존재는 소그룹 간의 교제도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새삼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최첨단 인터넷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회여서 온라인상의 교제가 오프라인상의 교제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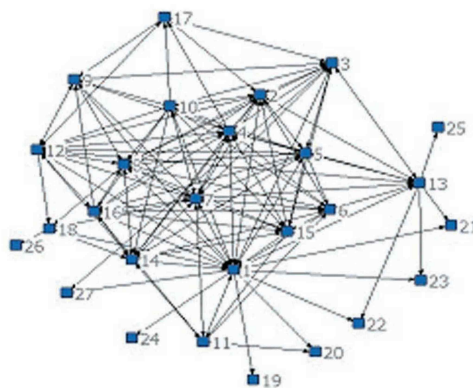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연결망의 예: 균형있는 교제의 모습





서나 유무선의 초고속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 인터넷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교제를 어느 정도 결합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08년도 12월25일자 미국 CNN에서는 아이폰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sup>1)</sup>. 휴대폰과 개인용컴퓨터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시대가 활짝 열린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실제화되고 있다. 교회 안에

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느 정도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고전적인 토의 주제는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how, 즉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첨단 문명의 이기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원활히 하고 더욱 깊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그 교제가 더 넓고 더 친밀하게 변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서 생성되는 사회연결망이 바람직한 형태로 변할 수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2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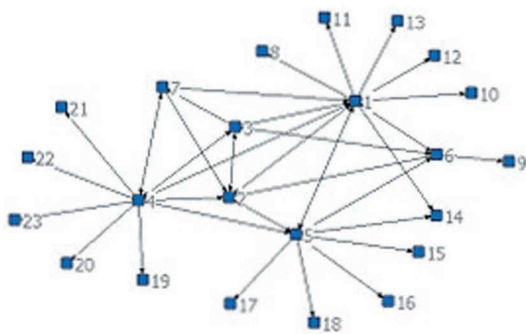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연결망의 예: 특정한 위주로 교제하는 모습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각주)

<http://edition.cnn.com/video/#/video/tech/2008/12/25/vinci.vatican.iphone.prayer.cnn>